

2024. 3. 21.(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2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사업소장	정순은	02-2240-8821
목동사업과장	문상규	02-2640-3814
목동운동장 관리팀장	김규태	02-2640-3815
누리집	http://stadium.seoul.go.kr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3매

'내일은 홈런왕' 서울시, 어린이 야구교실 운영... 25일(월) 참가 신청

- 오는 4~10월, 목동 다목적구장에서 진행될 야구교실 참가자(초1~중1) 모집
- 저·고학년 나눠 송구·타격, 규칙 등 이론과 실습 교육 비롯해 실제 경기도 진행
- 사업소 “야구교실 통해 어린이가 몸과 마음 건강 다지고 꿈 키우는 계기 되길”

-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4~10월 목동 다목적구장에서 열리는 「어린이 홈런왕 야구교실」에 참여할 어린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1학년이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3.25.(월) 13시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선착순 신청받는다.
- 2010년 잠실종합운동장 내 연식야구장에서 첫 개설돼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야구교실은 수강인원이 연간 1만 6천여 명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소년 스포츠 강좌다. 목동 다목적구장에서는 2019년부터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
- 「어린이 홈런왕 야구교실」은 야구를 통해 유소년의 체력을 증진할 뿐 아니라 단체 활동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시가 직영하는 스

포츠 강좌로, 한국연식야구연맹(KSBF)으로부터 선수 출신 전문 강사진과 심판을 지원받아 강습을 진행한다.

- 송구, 포구, 타격, 야구 규칙 및 이론 등 강습과 함께 팀 대항 등 실제 경기도 진행한다.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하여 즐거우면서도 체계적으로 야구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며 심판의 기본자세, 판정 방법 등 심판 이론과 실습도 병행된다.
-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에 대한 관심(연대감 표현), 야구시합을 통한 협동과 연대, 시합 중 상호 격려 및 소통하기, 예절교육을 통한 교감 등 유소년에게 필요한 인성교육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 이번에 진행되는 야구교실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부드러우면서도 실제 야구공과 같은 느낌의 ‘연식 야구공’을 사용해 타구에 맞아도 부상 위험 없이 야구를 배울 수 있다. 또 야구 장비 또한 무료로 대여해 주어 참가자의 개별 장비 준비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 「어린이 홈런왕 야구교실」 수업은 4.6.(토)~10.27.(일) 주말(토·일요일)에 운영되며,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은 월 4회(매주 1회, 1회당 80분)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수강료 4회 기준 5만원)

- 수강 신청은 3.25.(월) 13시~3.27.(수) 23시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http://yeyak.seoul.go.kr>)’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신청 받는다.
- 강습 및 수강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02-2640-3818, 목동사업과) 및 누리집(<http://stadium.seoul.go.kr>)을 참고하면 된다.

- 정순은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2010년 개설돼 많은 유소년의 체력 증진과 인성 함양의 장이 되어 준 서울시 대표 스포츠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며 “유소년이 야구교실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다지고,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붙임1

어린이 홈런왕 야구교실 이미지



어린이 홈런왕 야구교실 수업 장면 (목동 다목적구장)